

청년1부 봄나들이

지난주일 4부예배를 마친 후 청년1부는 조별로 야외에서 조모임을 가졌다. 봄을 맞이하여 청년들은 야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느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조모임이 시작된 지 한 달째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서로의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고, 앞으로 계속 될 성경공부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녁 시간에는 다가오는 부활 주일에 있을 예정인 위십사역팀과 문화사역팀의 뮤지컬 및 중창 공연 연습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1면에 이어)

“그리스도의 수난”

영화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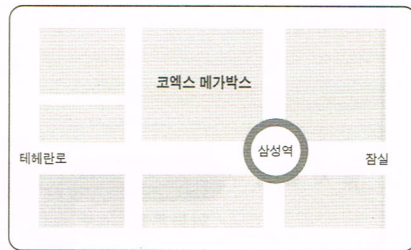
(패션 오브 크리스트 공식사이트 : <http://www.foxkorea.co.kr/passion>)
영화표는 주일 오전 9시부터 교회 로비에서 개인과 구역 별로 나누어 1매 6,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제한된 수량이므로 매

진될 수 있다) 7일 메가박스에서 관람을 원하는 성도는 7시 15분까지 입실을 완료하고, 11일 중앙시네마에서 관람을 원하는 성도는 3시 45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 교역자의 인도로 기도와 찬송의 시간을 함께 가진 후 영화관람을 시작하게 된다.

주님의 수난에 참여하는 심정으로,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 영화 관람은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맞는 성도들에게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코엑스 메가박스로 가는 버스노선은 일반 버스 21,56-2,78,63-1,65,69,710,21,571-1,212번, 좌석버스 37,571,772,773,64,64-1,933,960,30,1111,600번이며, 지하철 2호선 삼성역 5,6번 출구로 나와서 코엑스 방향으로 나가면 된다. 주차장 이용시는 영화 티켓 제시하면 3시간에 4000원 할인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회원 전용창구에서 티켓과 주차권을 함께 제시하면 된다.

중앙시네마로 가는 방법은 4면 상단의 기사를 참조바란다.



(1면에 이어)

"우리 몸값은 900원, 그러나 주님앞에서는 보석"

2시간 반쯤 달려 '최전방(GOP)'이라는 분위기가 피부가 시리게 와 닿았다. 하다못해 도로변의 가로수마저도 전투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듯 했다. 높지는 않지만 충분히 한 눈에 들어올만한 초소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드디어 우리는 신병교육대에 발을 디게 되었다. 교회이름은 '여호와 닮은'였다. 새벽이슬의 장비들이 설치되고 맨스팀 young H.O.N이 의상을 갈아입고 찬양을 위해 무대위에 섰다. 문화 사역에 앞서 예배를 드렸다. 훈련병들을 위한 세례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세례를 받기 전 서약식에서도 그들은 우렁차게 손을 앞으로 뻗으며 전투적으로 '아멘'을 외쳤다. 윤덕영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훈련병들이 그 말씀을 평생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헌병'이 필요없게 될지도 모르겠다. "주 안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란 그 어떤 귀한 보석과도 비할 수 없는 소중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훈련병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길 바랄 뿐이다. 윤덕영 목사가 훈련병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 정도인 것 같습니까?". 훈련병들의 대답이 압권이었다. "900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영 목사님은 저렇게 믿고 있는 훈련병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하신 셈이다. 유상렬 전도사와 청년부 김정민 자매의 듀엣 찬양은 우리의 친구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처럼 아름다웠다. 조성곤 집사의 찬양을 들었을 때는 성령의 힘이 충만한 방향으로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조성곤 집사의 달란트에 새삼스러운 놀라움과 직접 지은 가사에서 오는 은은한 은혜의 물결이 느껴졌다. 최성은 자매의 찬양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는 너무도 은혜로웠고, 찬양팀 young H.O.N의 위십 '사랑하라'와 'Lean on me',

'사랑하라'는 영어찬양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비전팀, 청소년비전 공개강좌 계획

홍민기목사를 강사로 4월14일
수요성경공부에

그동안 비전팀에서는 청소년사역에 집중하는 우리 교회 비전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 5차례 자체 모임을 가져왔다. 이제 내부적인 논의를 어느정도 정리하면서, 외부의 청소년사역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분들이 평생을 청소년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비전팀의 논의가 모든 교인들의 공감을 얻고, 청소년사역의 비전이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비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공개강좌 형태의 모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왔다. 그 결과 첫 번째 공개강좌로 홍민기 목사를 초청하여, 4월 14일(수) 수요성경공부 시간에 청소년사역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다. 홍민기 목사는 지난 학부와 교사를 위한 연속세미나 "Challengers"를 통해 이미 우리 교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다. 미국에서 Bridge Impact라는 청소년사역을 시작했고, 지금은 강남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탱크목사"로 알려져 있다.

다음주일 인라인 마라톤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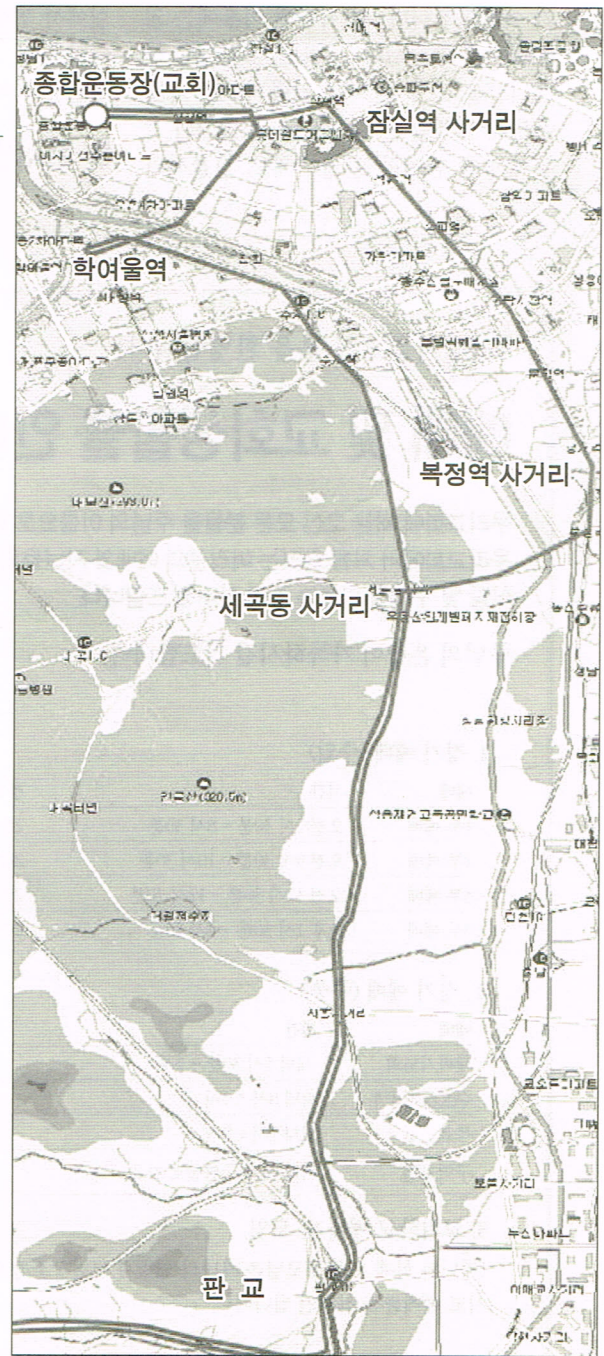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하여 잠실역사거리를 지나 북정역 사거리를 우회하고 세곡동 사거리에서 판교쪽으로, 판교에서 1차 반환하여울역에서 2차 반환한 후 돌아오는 코스이다.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기독교 특별 시사회 반응 뜨거워



우리교회에서 고난주간 행사로 함께 영화보기를 전개하고 있는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가 지난 22일 서울 온누리 교회 서빙고 본당에서 종교인을 대상으로 첫 시사회를 가졌다. 이날 시사회에는 약 1천2백 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했다. 이날 시사회는 상영 2시간 내내 울음과 탄식이 끊이지 않았다. 영화 중반 이후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처절하게 고문을 당하는 장면과 마지막 십자가 처형 장면이 이르자 많은 여성 신도들은 손으로 눈을 가리며 스크린을 제대로 응시하지 못했으며, 어머니 마리아와 어린 예수의 회상 장면, 채찍질을 당하며 가시면류관을 강제로 씌우는 고난의 장면이 나

올 때마다 남녀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날 시사회를 주최한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누구나 침묵한다. 그 이유는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혹한 수난을 당하셨는지 몰랐다. 폭력과 테러가 자행되는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이런 폭력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고난은 곧 인류의 구원이다. 이 영화는 지금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영화이며 꼭 봐야 할 영화이다. 이 시간 이후 난 <The Passion of the Christ>의 전도사가 되겠다"라고 영화를 본 소감을 밝혔다. 한 여성 기독교인 한 명은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다. 예수님의 고난을 영화로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중년의 한 남자 신도 역시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나의 본질과 정체성을 찾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고난의 아픔이 느껴지는 좋은 영화이다"라며 영화에 대한 호평과 찬사를 표현했다.



1. 고난주간 특별행사 안내

이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주제로 계획된 교회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특별새벽기도회가 나라를 위한 기도회의 시간으로, “내가 듣고 고칠지라”라는 주제로 4월5일(월)부터 9일(금)까지 매일 오전5시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 ② 성금요일 칸타타 및 성찬예배가 “고난의 찬송”이란 주제로 4월9일(금)오후 7시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칸타타는 살롬찬양대가 준비합니다.
- ③ 그리스도의 수난을 다룬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함께보기 행사를 위하여, 4월8일(목)은 오후7시30분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 3관에서, 11일(주일)은 중앙시네마(을지로2가)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티켓은 오늘(4일) 오전 9시부터 오후1시30분까지 1층로비 자원봉사데스크에서 1매 6500원으로 선착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음주일 마라톤안내

4월 11일(부활주일)은 문화일보 인라인마라톤대회가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교회오실 때 1부와 3부 예배시간에 집중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앞에서는 오전8시20분부터 9시10분까지 1차 교통통제가 되고 잠시 풀렸다가 9시 50분부터 11시15분까지 다시 교통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위 시간대 이후에는 교통통제가 없습니다. 인라인 대회이고 한계시간을 두고 대회가 진행되므로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2부예배에 참여하실 경우에도 경찰서와

협조하여 우리교회 마크나 비표를 전면 유리에 부착하면 교통 흐름을 봐서 통행을 허락하기로 하였습니다. 안내석에 비치된 안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3. 고난주간 휴강안내

이번주간의 모든 양육프로그램과 구역모임, 수요성경공부, 수요구역장성경공부는 쉽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4. 새가족모임개강

새가족모임 오전반이 오늘 오전10:30-11:30 개강합니다.

5. 이동주차협조안내

유소년축구클럽이 매주일 오후에 정선학원 운동장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주차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1시 15분 이후에는 운동장에 주차된 차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엘리베이터는 장애교우에게

장애교우들에게는 엘리베이터가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때 장애인과 노약자를 발견하시면 우선적으로 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7.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오신 성도들께

통합아동부가 레인보우라는 이름으로 2부예배 시간에(9:30-10:30) 1층 유년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2부예배를 참석하는 성도들은 자녀를 여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 부서별 모임안내

양코르합창단 연습이 오늘 오후 1시 5층 찬양대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사역팀 전체모임이4월 6일(화) 오전 11시에 영아부실(지하1층)에서 있습니다. 팀장모임은 오전 10시입니다. 제1여선교회 월례회가 4월 6일(화) 오전 11시 5층 찬양대실에서 있으며, 김미자 권사의 특강도 있습니다.

제2여선교회 월례회가 4월 6일(화)에서 4월 14일(수)로 오전 10시로 연기되었습니다. 장소는 영아부실(지하1층)입니다. 제3여선교회 월례회가 4월 8일(목) 오전 11시 영아부실(지하1층)에서 있습니다. 장로회(부부동반) 부활절 특송연습이 4월 11일 오후 1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중앙시네마 오시는 방법

1. 지하철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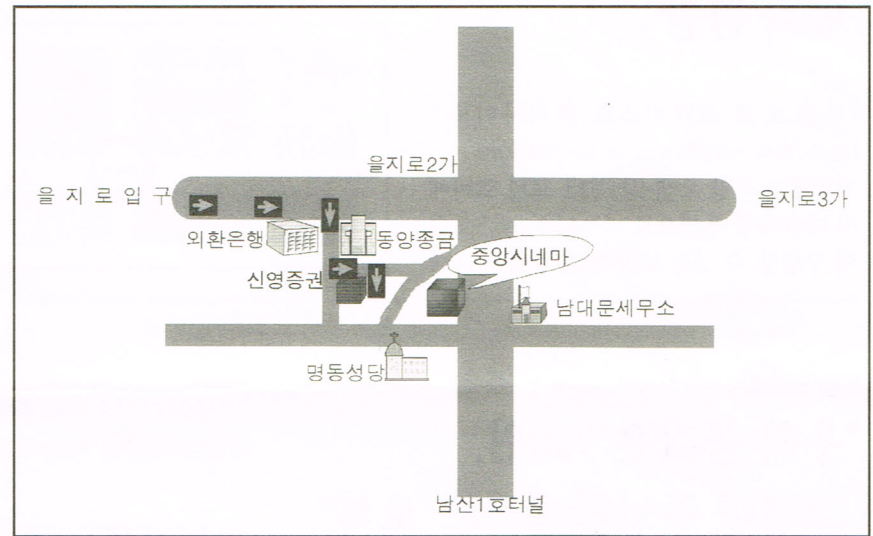
지하철 2,3호선 : 을지로3가역 지상으로 나오지 말고 지하보도 내에서 을지로 입구 방향으로 똑바로 걸다가 천정에 있는 '중앙시네마' 표지를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역에서 약100m, 7-8분 소요)지하철 4호선 : 명동역 -10번 출구로 나오실 경우 : 세종호텔을 오른쪽 코너를 돌아 계성초등학교앞을 지나 쪽 걸어 오세요.

(도보로 약12-13분정도 소요)

-명동방면 출구로 나오실 경우 : 명동 중심을 통과하여 명동성당을 찾아오신 후, 평화방송 건물이 보이는 찻길 쪽으로 내려와 왼쪽으로 오시면 극장이 보입니다.

2. 주차장 안내

신영증권 주차장 진입시 반드시 외환은행과 동양증권 사이길로 들어오세요. (주차비 3천원)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 정기 예배 (주일)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2. 정기 예배 (주중)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8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 ~ 9시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3.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 간	장 소	대 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썸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

4.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식사하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7. 친교실(1층) 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주일 및 평일에도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내가 듣고 고칠지라”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 대예배실
매일 기관별 특별찬양도 준비

이번 고난주간에는 “내가 듣고 고칠지라”는 주제로 특별새벽기도회가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5시30분에 대예배실에서 나라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로 열린다. 교회 기관별로 특송도 계획하고 있다. 월요일에는 교역자 및 당회원, 화요일에는 교회학교 교사, 수요일에는 구역장 및 권찰, 목요일은

권사회, 금요일은 안수집사회에서 말을 예정이다. 관련부서를 기억하여 해당요일 오전4시50분까지 1층 제3집회실에서 모여 연습하고 예배전 본당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번 기도회를 위하여 차량부에서 새벽봉사하게 되며, 봉사부에서는 기도회가 마친 후에 모든 성도들에게 빵과 우유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설명: 신병세례식 예배장면

“우리 몸값은 900원,
그러나 주님앞에서는 보석”

훈련병 세례받던 날, 군선교부 사역이야기

2004년 3월 27일 토요일, 윤덕영 목사, 성백술 장로, 전 국방부 차관이었던 임현표집사, 조일송 안수집사, 초청가수로 이윤수, 김성근 형제, 청년부 유상

렬전도사와 ‘새벽 이슬’, 워십댄스팀 ‘young H.O.N’ 이 함께 강원도 철원의 15사단 신병교육대로 진군했다. 이곳은 부사단장으로 박진수집사가 근무 중이다. 따라나선 청년부 지체들 모두 시간을 내어 사역에 참여하겠다고 자청하는 모습이 실로 아름다웠다. 이들은 각자의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내어드리는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는 입대를 앞두고 있는 김원준형제도 있었다. (3면에서 계속)

Challengers 45명 수료 50명 개근

“8번의 연속 강의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의 사랑으로 이어져”



3월 13, 14, 20, 21일 4일간 8번의 강의로 이루어진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 세미나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명성메빅의 이기동전도사, 어와나 코리아의 이종국목사, 브릿지 임팩트의 홍민기목사 그리고 주님의교회 김현령전도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총 150여명의 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을 세미나를 통하여 45명의 새로운 교사를 배출했다. 이들 중에는 이미 교회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해오던 성실한 일꾼들도 많이 있다. 새롭게 교사자격을 부여받은 이들은 각 부서에 흩어져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 할 것이다.

2004 Challengers 수료자 명단

고선옥 고정순 구본영 권덕원 김경숙 김경숙D 김동은 김두향 김성봉 김진호 김현희 김희주 류재진 민병준 박여름 박철호 박해진 배은영 서희송 성향순 신명식 신미주 신양금 심경화 양옥희 우진선 유경 유마노 유사랑 유지연 윤봉섭 이미삼 이민우 이세진 이채연 임미정 장영숙 장지윤 전미애 전민주 조현정 최철호 허소정 홍의운 홍지혜

“그리스도의 수난” 영화 관람

8일 코엑스 메가박스, 11일 중앙시네마, 티켓구입은 1층 로비에서

주님의교회는 4월 8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영화 “그리스도의 수난”(The Passion of The Christ)을 함께 관람하고자 한다. 8일 오후 7시 30분 메가박스, 11일 오후 4시 중앙시네마에서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모여 영화 관람을 하게 된다.

영화배우 멜 깁슨 감독한 본 영화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12시간을 그린 영화이다. 영화의 시작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후에 기도하기 위해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된다. 유다의 배반, 사형선고, 채찍과 가시면류관, 계속되는 고통과 이를 피하고자하는 인간적인 유혹이 예수님을 괴롭힌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게 된다. “다 이루었도다.” 말씀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제

껏 경험하지 못한 가장 현실적인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하게 된다. (3면에 계속)

임시당회, 고난주간 행사 및 소프트웨어 구입을 결의

임시당회가 지난 3월27일 오전6시에 열려 몇가지 긴급한 사안들을 심의후 결의하였다. 고난주간 영화함께보기행사를 위하여 메가박스 450표와 중앙시네마 473표를 교회재정으로 미리 구입한 후 구역별로 판매하고 주일(4일)에 개인별로도 판매하기로 하였다. 교회 사무실 및 교역자실의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였으며, 바이러스백신프로그램, 워드프로그램, OS프

로그램등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3월14일에 있었던 기계실 화재사고를 계기로 하여 교회의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대강당 비상구출구 신설을 검토하며, 대소강당 내장벽지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분말소화기 60개를 구입하여 각층 각실에 비치한 것을 인준하였다.

세례식 6월2일, 유아세례식 5월12일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청서를 받아

상반기 유아세례식이 5월 12일 수요일 경공부시간에 있으며, 4월 18일 주일부터 유아세례교육이 4주간 진행된다. 입교세례식이 6월 2일 수요일경공부시간에 있으며, 아울러 4월 25일 주일부터 세례교육이 4주간 진행된다. 세례신청은 본당 1층로

비 안내데스크에서 신청서를 기록하여 제출하면 되고, 교육시간은 주일오후 1시30분이며, 장소는 차후에 안내한다. 새가족모임(새가족성경공부)을 수료한 사람은 세례문답과정만 참여하면 된다.

교육위 영화상영, 교회문화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기대

교육위원회는 Challengers - 학부모와 교사를 위한 연속 세미나의 부속 프로그램으로 3월 14, 21일 양일간 중예배실에서 영화상영을 했다. 상영된 DVD는 ‘부르스 올마이티’, ‘니모를 찾아서’ 이다. 매회 50-70명의 어린이부터 어른이 삼삼오오 모여 즐겁고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하였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으면서도 감동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영화를 엄선, 교회 문화프로그램의 하나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사순절 한 끼 음식으로 북한 어린이 돕기 동참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헛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세요”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약 2:15-17) 지금 이 순간 270만 북한 어린이들의 생명이 굶주림으로 꺼져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 핵문제로 야기된 국제정세의 악화로 국내의 원조가 줄어들고 있어 이대로 가면 270만 북한 어린이들이 굶어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주님의교회 구제부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한 끼 음식으로 북한 어린이 돕기 헌금을 하였으면 한다. 교우들의 정성 어린 헌금은 국제 옥수수 재단을 통하여 굶주림으로 꺼져가는 270만 북한 어린이들을 살리는 귀한 열매로 거둬낼 것이다.

감정의 질병의 치유사역

복지선교부/강원도 횡성 세계십자가 선교회를 가다.



햇벌이 따사로운 3월 28일 오후 1시 윤덕영 목사, 이충길 복지선교부 부장을 포함하여 9명의 부원들은 횡성에 있는 세계십자가선교회로 출발 하였다. 옷, 책, 신발 등의 나눔의 물품은 먼저 보내고 빈 마음으로 또 한번 주님의 놀라운 연출을 기대하며 3시20분 현지에 도착하였다. 1978년 실명하고 교도소에서 아무런 보상도 해줄 능력이 없는 ‘지극히 작은자’를 위해 섬기라는

소명을 받으셨다는 안일권 목사의 간단한 선교회 소개를 받고 우리를 위해 한시간 늦춘 주일 예배장소로 갔는데 엄청 크고 힘있는 찬양소리가 들어서는 우리를 압도하였다. 약 60명 가량의 수용 형제들, 한때 마약과 알콜 중독으로 가족과 가정을 잃고 3개월간의 재기 과정을 거치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뜨거운 기도와 즉석 특송으

로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예배 후 간담회 시간에 세계십자가선교회의 사역이 감금이 아닌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중독자들을 신앙안에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는 사역을 들으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 십자가선교회는 강원도 횡선에 무료로 중독자들 받아들이 훈련하는 센터가 있고, 서울 정릉에 쉼터를 두고, 매월 3박 4일로 상처입은 감정을 치유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양평에서 하고 있어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사회복지 사역에서는 알콜 중독, 가정폭력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혼을 권면하는 추세인데, 안목사는 그 가정을 회복하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동행한 김미숙 집사(신광모자원 원장)도 “신광모자원의 아버지들이 여기 모여 있다”며 감격해 했고 다른 일행들도 모두 뿌듯한 주님의 선물을 받고 수용 형제들의 따뜻한 배움을 받으며 귀경 길에 올랐다. (치유프로그램 문의: 안일권목사 02-941-2503)

살롬찬양대 이동훈 지휘자에게 듣는다

성금요일 칸타타, 여러작곡가의 곡을 모아 하나의 형식으로

“모든 대원들이 매우 열심이고 찬양대에 대한 소속감이 대단해”

4월 16일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주님의교회는 3부 살롬찬양대 주관으로 음악예배를 드린다. 이에 앞서 이동훈 지휘자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동훈 지휘자는 소망교회에서 30년간 지휘자로 활동하고 2004년 2월 주님의교회에 부임, 3부 살롬찬양대를 맡게 되었다. 성금요일에 음악예배를 맡게 되는 이동훈 지휘자에게 귀 기울이고 맘을 가다듬어 보자

기자: 이번 성금요일 음악예배는 어떤 컨셉으로 꾸며졌나
이동훈: 한 작곡가의 칸타타로만 음악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수난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작곡가들의 곡을 모아 하나의 음악회 형식으로 준비했다. 음악예배의 타이틀도 ‘고난의 찬송’이라고 붙였다.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곡이 음악예배의 첫 곡인데 이 곡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로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모습을 합창으로 나타낸 것이다. 예수님의 진정한 수난을 알리는 찬송이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 찬송을 할 때 그 고난에다 같이 동참하였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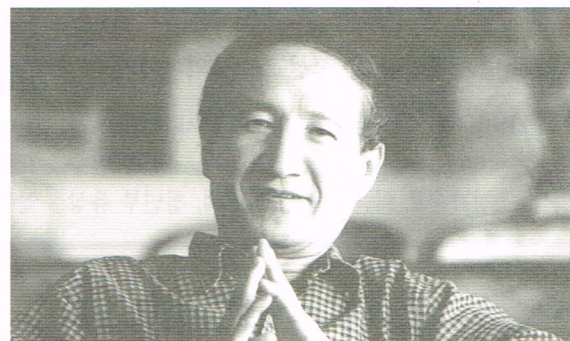
기자: 합창만으로 꾸며졌나

이동훈: 아니다. 한 달 전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여 살롬찬양대에서 함께 찬양대원으로 섬기고 있는 김수진 교수의 소프라노 독창과 김경환 교수를 특별 초청하여 트럼본 독주를 듣는다. 김수진 교수는 많은 오페라에서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프리마돈나이고 김경환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트럼본니시이다. 트럼본은 사람의 목소리와 매우 가까운 악기다. 서양에서 다른 악기들이 교회에서 연주되는 것을 금하던 시대에도 트럼본은 연주를 허락했었다.

기자: 살롬찬양대를 처음으로 맡았는데 소감과 비전을 전해달라

이동훈: 살롬찬양대의 지휘자가 된지 정확하게 두 달이 되었다. 모든 대원들이 매우 열심이고 찬양대에 대한 소속감이 대단하다. 음악을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다. 따라서 발

전이 매우 빠른 것 같다. 이런 페이스라면 머지않아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없는 명(名)찬양대가 될 것이다. 이런 찬양대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계획적으로 키워 가고 있다. 리듬 훈련, 음정 훈련 뿐 아니라 레가토와 같은 노래를 노래답게 부르는 훈련을 한다. 우선은 소리를 다듬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다. 지금은 소리가 작더라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잘 되면 소리를 조금씩 키워 가갈 것이다. 좋은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 교인들이 기다려 주었으면 한다. 우리들의 찬양대이니까. 많은 격려도 부탁한다. 찬양대에 직접 찾아와 인사도 좀 해주어도 좋겠다. 누구든지 언제나 환영이다.



새가족의 5주 여행, 새가족 모임

새가족모임은 새가족들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에 한가족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새가족 필수 과정으로 총 5주간 진행된다. 모임 시간은 주일 오전반이 10:30-11:30, 주일 오후반이 12:30-13:30이다. 새가족등록대에서 접수후 참가 가능하며, 개강일정과 모임장소는 전화로 안내한다. 현재 1기 새가족모임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중이며, 주일 오전반은 오늘 시작된다.

새가족 모임의 주별 과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1주 나에게 예수님이 왜 중요할까?

어느 교사의 연속세미나 참가 소감
“아이들과 함께 뒹구는 것이 가장 먼저”

“메빅과 어와나라고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교사로서 많이 연구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교사세미나에 소개하고 함께 듣고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

2주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
3주 주님과과의 사귄:말씀과기도
4주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되나요?
5주 주님의교회를 아십니까?

들과 함께 뒹구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기도와 함께 전도하는 것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임을 새삼스레 깨닫는 시간이었다. 더 많은 교사들과 학부모가 참석하지 못했던 것이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고, 교사 간에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은 아쉽기도 하다. 그러나 좋은 강사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사세미나를 진행해 주신 교육부에 감사드립니다.”

